

극동경제 개발 전략과 향후 협력방안

2017.12. 2

전명수

국립 블라디보스톡 경제서비스대학교

● 아시아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극동러시아를 차세대 국가경제성장의 견인하고자 함

목표

- ◎ 세계경제흐름이 동쪽으로 이동
- ◎ 아태경제권역이 향후 세계 경제질서를 선도

- ◎ 아시아에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확대

주요이슈

주요 현상

-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극동지역인구 이탈현상 심화
- 과거 극동개발은 국토방위 차원의 '방어적' 전략 지역
- 유라시아를 잇는 단순 물류기착지 역할

성장 잠재력

-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 대두
- 에너지,광물,수산 등 천연자원의 보고
- 유럽-아시아를 잇는 물류허브로써 발전 잠재력 대두

전략

극동개발

- ◎ 극동지역 자원을 개발, 아시아의 신시장 적극 개척
- ◎ 지금까지 유럽 교역기반이었던 서부지역 중심에서
- ➔ 아시아 교역을 강화해서 동부를 주축으로 국가경제성장 견인하고자 함

● 극동러시아 에너지자원개발과 연계하여 견고한 지역개발 추진

주요 현상

외교안보

- ◎ 인구감소 지속
 - 열악한 지역 경제환경으로 탈극동 현상 심화
 - ※ 접경지역 중국의 동북3성 인구지속 유입
- ◎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영향력 확대 필요

경제

- ◎ 지역 에너지 및 자원개발

추진 방안

- ◎ 지역사회경제 인프라 확충
 - 자립 경제기반 조성
- ◎ 아태지역 역내 국가간 협력강화
 - 동북아시아(중국,일본,한국)로 에너지 수출 확대

- ◎ 에너지 공급국 지위로 동북아에서 경제위상 강화

지역 에너지자원개발과 연계해서 극동지역개발 촉진

- ◎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제고
- ◎ 지속가능하며 선순환적인 견고한 지역경제시스템 구축

●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고 극동개발 구체화 전망

비전

◎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지

전략

◎ 에너지자원 개발·가공·물류 등으로 지역사회경제 인프라 확충
- 2020 장기적 연방 프로그램에 의거한 단계적 전략

추진방향

◎ 향후 동북아시아 에너지자원 공급기지 역할로써 위상 강화

※ MARKET INSIGHT

과거

- ◎ 지역 사회경제 인프라 미비
- 금융 및 전문인력·숙련 노동력 부재
- ◎ 물류기착지
- 서부러시아를 잇는 관문
- ◎ 협소한 시장규모
- 서부 러시아 대비 좁은 시장 및 소비력
- 낮은 출산율, 인구감소 지속

미래

- ◎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지로서 부상
- 2025 극동지역 경제발전 전략
- ◎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자립경제 인프라 확충
- 2차 가공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체화 촉진
- ◎ 중앙정부의 개발의지
- 법률적으로 지역개발 근거 마련
- 관리운영기구 설치

● 지역사회경제 인프라구축과 동시에 아시아에 에너지공급으로 역내 국가간 협력강화 추진

전략과제

낙후된 지역의 사회경제 인프라 확충

자원개발 연계 가공클러스터
ONE STOP 서비스 (개발/가공/판매)

동북아 에너지공급 허브 역할로
아태 역내국가와 협력강화

실행 전략

물류,산업,경제 등 인프라 확충

- 산업(관광,농업) 육성
- 역내국가간 통합형 광역교통체계 구축
-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강화

에너지공급 인프라 강화로 아태지역과 협력강화

- 원유 및 가스망 구축
- 자원개발과 연계하여 석유가스 가공단지 구축
- 석유화학, 정유 등

동북아 주변국간 외교역량 증대

- 한중일 중심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 아태국가 역내 협의체 적극 참여

I. 에너지개발 운송 및 가공 기지

- 동시베리아 태평양송유관(ESPO)
- 연해주 석유화학단지
- 극동지역 가스관 건설
- 콤소몰스크정유공장 현대화
- 사할린 프로젝트

II. 공항·항만 등 물류인프라 현대화

- 주요 항구 현대화
- 도로 신규건설 및 개보수
- 특별경제구역 지정

주요 내용

❖ 2025 극동지역 경제발전 전략

III. 광역도시 구축

- 바이칼-아무르철도(BAM) 현대화
- 관광특구 육성
- 주택건설 확대
- 카지노단지 조성

IV.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 첨단 제조업 특화 육성
 - 조선업 생산기지 특화
 - 자동차 생산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 지역 전략 광물자원 개발

II. 극동마켓

1. 극동시장 및 개발추진 방향

극동 시장 개요

- 인구수 1억 4천만명 내수시장 진출 교두보
- 광물, 임산, 수산자원 등 천연자원의 보고
- 유럽·동북아를 잇는 물류중심지
- '2030 극동바이칼 경제사회발전 연방 프로그램'으로 대대적인 지역개발 추진
-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의 전초기지

도출

SOC 인프라 및 물류, 에너지 제조 기반의 건설특수가 기대되는 방대한 개발형 PROJECT 잠재 보유시장

러 정부, 추진 전략

추진 방향

- ❖ 지역의 자립적 기반 인프라 구축
 - 지역별 경제특구(산업클러스터)지정
 - 북극항로 전초기지로 기반 조성

유치 전략

- ❖ 러시아 중앙정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세제 및 기본 인프라 러시아 측 부담
 - 자유항,선도개발구역 등

조직기능 재편

- ❖ 거점확대로 아시아 지역과 경험 극대화
 - 블라디보스토크 캄차카 등 거점설치
 - 극동개발부 산하의 전담기관 체계화

시사점

- ❖ 수출주도형 경제특구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진행
 - 각 지방별로 경제특구 지정, 법적 기반의 추진동력 확보
- ❖ 투자기업 세제혜택으로 유치 가속화
 - 극동발전기금으로 기본인프라 건설 지원
- ❖ 빠른 의사결정으로 지원강화 기대
 - 거점별 권한확대 및 R&R 명확화

II. 극동마켓

2. 주변국의 연관 정책 동향

● 한·중·러 주도로 새로운 동북아경제권역의 인큐베이터 지속 추진 전망

국가	정책	주요 핵심	주요 사업
대한민국	신북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 추진 → 신동방정책, 일대일로 	북방 경제협력위원회 창설 9개의 다리
러시아	신동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후된 극동개발을 통해 동북 아시아에서 정치 및 경제 영향력 확대 	경제특구조성 주변국과 경험확대 교통망 광역화
중국	일대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실크로드 구축을 위해 동북3성에서 동해까지 해상항로 구축 	동북3성 집중개발 AIIB 은행 자루비노항만개발

◎ 기회의 삼각지대인 향후 동북아시아 경제권역의 핵심 '인큐베이터'

◎ 통일 경제기반의 초석으로 급부상



●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고 극동개발 구체화 전망

비전

◎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지

전략

◎ 에너지자원 개발 · 가공 · 물류 등으로 지역사회경제 인프라 확충
- 2020 장기적 연방 프로그램에 의거 단계적 전략

추진방향

◎ 향후 동북아시아 에너지자원 공급기지 역할로써 위상 강화

※ MARKET INSIGHT

과거

- ◎ 지역 사회경제 인프라 미비
 - 금융 및 전문인력 · 숙련 노동력 부재
- ◎ 물류기착지
 - 서부러시아를 잇는 관문
- ◎ 협소한 시장규모
 - 서부 러시아 대비 좁은 시장 및 소비력
 - 낮은 출산율, 인구감소 지속

미래

- ◎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지로서 부상
 - 2025 극동지역 경제발전 전략
- ◎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자립경제 인프라 확충
 - 2차 가공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체화 촉진
- ◎ 중앙정부의 개발의지
 - 법률적으로 지역개발 근거 마련
 - 관리운영기구 설치

Ⅲ. 러시아 사업환경 3대 KEYWORD

- 극동개발, 제조업 중심의 산업다변화, 구소련 단일경제권으로 국가경제구조 재편 중

KEY FACTOR

신동방정책

자국 제조업 육성 강화

단일경제블록화
'유라시아경제연합'

주요 내용

아시아와 협력확대

- 법적 기반의 경제특구 - 자유항, 선도개발구역
- 지역별 특화 개발 - 연해주 (물류,농업), 사할린 (수산, 에너지), 캄차카 (광산,북극항로 기착지) 등
- 투자유치 지속화 - 극동무상분배, 동방경제포럼 등

수입대체재 정책 및 자국산 제품시장 주도

- 제조설비투자 자국기업 적극 지원
: 펀드, 정부구매보장, 공공조달 가산점 부여

역내 무역자유화로 단일경제권 추진

- 역내 무역자유화 - 관세동맹 등
- 역외국과 FTA 추진 등으로 외연확대

IV. 주요 사업환경

● 점진적 경제 회복추진 ,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한 국면

주요 내용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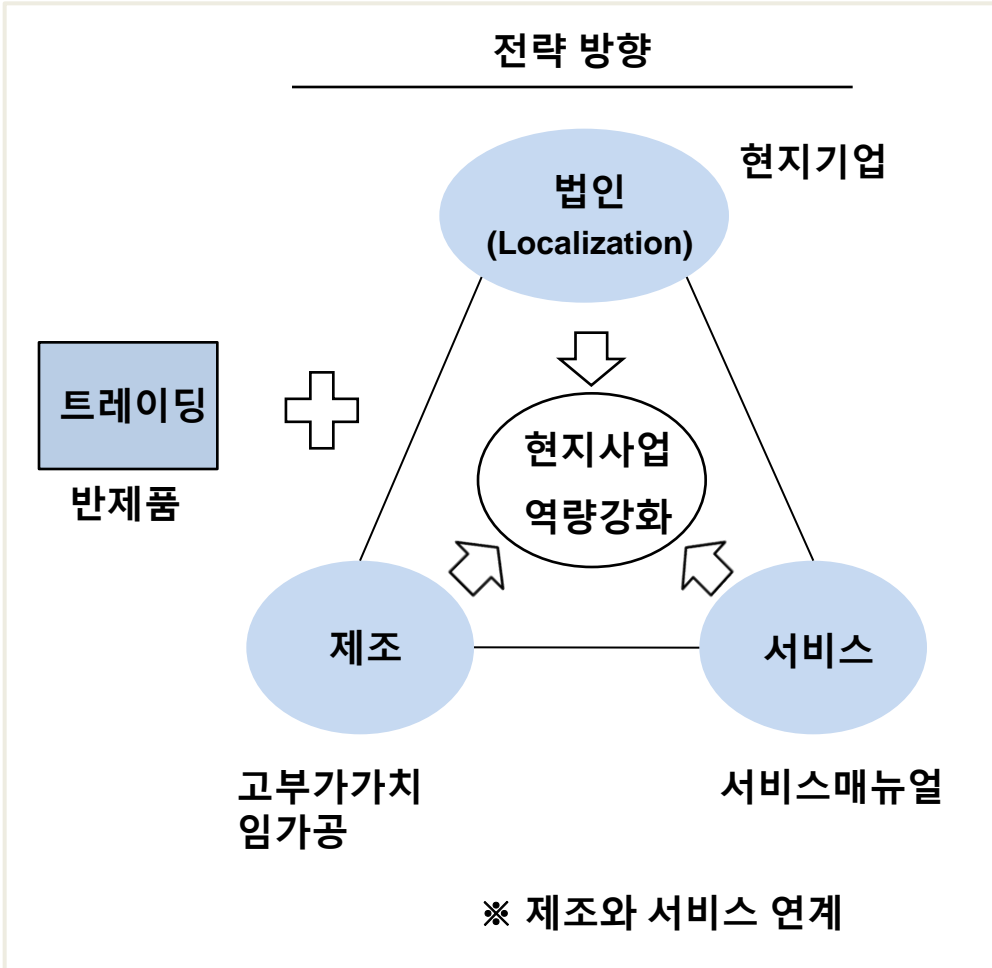
시
장
상
황

- ❖ 유라시아경제연합(EEU)으로 CIS권역 단일 경제권 블록화 지속
 - 상품,서비스,자본 등 다방면에 걸친 경제협력 가속화
- ❖ 국제유가 및 정치·외교 변수 희석화
 - 극심한 저유가 기조 탈피
 - 국제신용 평가기관, 러 경제 불확실성 감소
- ❖ 실물경제 개선으로 경기회복 추세
 - 러 정부,경제성장을 2% 전망
 - ☞ IMF(1.1%), 세계경제은행 (1.5%)
 - 환율전망: 55루블~60루블/USD
 - 인플레이션 안정화 ('16년 5.4%, '17년 4%대 목표)
 - 실질소득 증가수치 보이나, 여전히 하향 소비행태
 - 금융,기업 구조조정으로 부실해소 및 산업경쟁력 강화
- ❖ 제조업 중심의 산업다변화 적극 추진
 - 수입대체재, 생산설비 현대화로 자국상품 품질개선
 - ☞ 산업생산 증가율 상승세,식품,섬유,임업 순
 - 베트남 등 PB상품화로 완제품 단순 수입 지양
- ❖ 러중, 경제협력 심화 확대
 - 극동개발로 투자의향 집중: 국제운송회랑 등
 - 에너지,제조,영농,금융 등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 ☞ 연해주,하바롭스크 영농,제조 등
- ❖ 러일, 경험중심으로 영토문제 해결 접근
 - 대러 외교를 국가 주요정책으로 전개 중
 - 일본, 경제협력 강화로 러와 관계 적극 개선 중

- ❖ 유라시아 허브로 국가경제기반 강화
 - 구소련 아우르는 국경무역
- ❖ 불확실성 해소로 국가 경제개선 전망
 - 외국인투자 재점화
- ❖ 유통시장의 재편
 - 대형화,도소매 일원화
 - 현지 직판체제
 - 단순 트레이딩 접근 비효율적
- ❖ 현지화 사업으로 진출
 - 현지 가공사업 진출 필요
 - ☞ 임가공 등
 - 러 공단과 활용한 현지 진출 모색 : 기술,원재료,판매 제휴 등
- ❖ 한러 유망 사업모델 재정립 필요
 - 단순 트레이딩 지양하고 중장기 관점의 현지사업 진출 필요
 - 정부주도의 진출 플랫폼 재정비 : 금융,협상 등

V.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을 연계한 시너지창출을 가능한 사업분야 검토
- 단순 트레이딩의 대리 사업은 한계 국면 더 이상 승산 없음
 앞으로 제조 & 서비스 매뉴얼이 결합된 새로운 사업의 패러다임이 요구됨



사업 특성

사업 특성

- 현지기업과 대등한 경쟁
 - 법인형태, 단독출자로 역량강화
- 소규모 투자로써 사업을 직접경험
 - 통관, 세무, 마케팅 등
 - 점진적 사업확대 고려
- 틈새사업의 제조 및 운영서비스 연계한 사업분야

사업 분야

- 보건복지 및 교육
- 식품포장, 대체에너지
- 온라인쇼핑몰
- 과일, 조경화훼 등

VI. 신북방정책

북방정책 추진경과

<역대정부의 북방정책 주요내용>

구분	정책	주요내용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	1990년 소련과 국교수립 외교중심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對 러시아 우호관계 강화 외교중심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	對러시아 우호관계 지속 외교중심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남·북·러 가스관 사업추진 등 경제중심
박근혜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남·북·러 물류사업 추진 등 경제중심

- ◎ 정치적 이유들로 추진동력 상실,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계속됐지만 구체적 성과로 연결되지는 못함
- ◎ 그간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주변국 협력을 활용해 실질적 성공사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

추진 플랫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 기구: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연계성 강화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임
☞ 국무회의의「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심의·의결 (2017.8)

2. 위원회 구성:

- 4개 부처(기재부·외교부·통일부·산업부) 장관
-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
- 각 분야의 전문가 24명의 민간위원 구성

3. 주요 운영(案):

- 대통령이 위촉한 전문가 1인이 위원장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간사
-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 그리고 특정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전문가등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도 구성·운영

4. 주요 역할 :

- 북방경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부처별 실행계획·추진성과 점검
- 올해 9월초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러 양자 경제협력 정책으로 천명한 9개 다리에 대한 상세 추진계획 수립

VI. 신북방정책

추진 정책

'9개 다리(9-BRIDGE) 전략'



동방경제포럼 VIP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EEF)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뤄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있음

9개 다리 분야별 사업군

분야	사업분야
에너지	가스
	전력
물류	철도
	항만
	북극항로
산업	조선
	농업
	수산
	일자리

VI. 신북방정책

- 11월 8일 문재인 정부 초대 주러 대사직 수행을 위해 모스크에 도착한 우윤근 신임 대사는 지난달 30일 러시아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

문재인 정부는 한러 양국의 잠재력 극대화 및 이를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신뢰관계 증진을 희망한다고 전함. 그러면서 우대사는 세 가지 중점추진 과제를 소개함

1. 매년 양국 정상회담의 정기적 개최를 포함한 최고위급 교류 및 의회간 교류 활성화

- 외교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양국 의회 간 교류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러 의회대표단 방한 추진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회장자격 12월 11일모스크바 방문

2. 실질적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 및 구체적인 성과 달성

- 12월 7일 예정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식회의,한러 비즈니스 포럼 등으로 2018년 '9개의 다리'관련해 구체적 협력방향 및 계획 수립
- 9개 다리 협력의 구체적 성과에 최우선 경제협력 과제로 추진

3. 문화교류와 상호방문 인적교류 확대

- 평창동계올림픽 및 러시아월드컵, 예카테린부르크 산업박람회(2018이노프롬) 여타 다양한 문화교류행사 개최로, 양국 국민들간 상호관심 제고와 방문확대 기회로 활용

V. 9-BRIDGE

구분

Bridge

주요 내용

1

에너지 (가스)



-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부터 에너지 도입 '남북러 가스관'연결
- 러시아산 LNG가스 도입 확대
 - 남북 교류협력의 교두보
 - 기존 구매선으로 집중된 중동지역을 탈피, 도입처 다변화
 - 국가 에너지안보 역량 제고
- 단순 수입구조 탈피, 실행력 제고 위한 '안정적 사업인프라' 모색
 - 지금까지 북한 리스크로 3각 협력사업 추진동력 상실
 - 러중, 가스협력 인프라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 러일, 가스협력 플랫폼 사할린에너지 사업구조 참고

'새로운 접근법이 사업진척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

2

에너지 (전력)



- 자원부국인 러시아로부터 전력망을 연결, 한국으로 반입
 - 한-중-몽-일-러간 광역전력망 구축 '동북아 수퍼그리드' 프로젝트
 - 한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계기
 - 동북아 단일공동체를 건설을 위한 다자사업의 교두보
 - 2006년 한러 자원협력위원회간 합의로 예비타당성 연구 진행
 - 남북관계 악화로 2010년 중단, 2013년 정상회담에서 재추진 합의했으나, 실제 추진은 미온적
 - 최근에 한국전력 러시아 측과 협의 중
- '동북아 수퍼그리드 프로젝트 보다 실현성이 높은 남북경협사업 이 더 타당성이 높아 보임, 이를 바탕으로 다자간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V. 9-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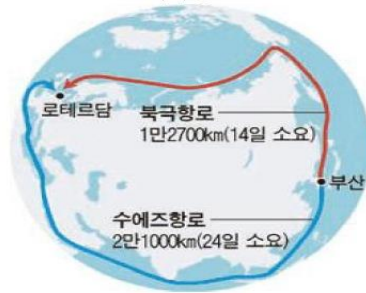
구분

Bridge

주요 내용

3

북극항로



- 지구온난화, 북극해빙 및 조선업 기술로 북극항로 시대 도래
- 물류대혁명, 현재대비 거리시간 약 34% 단축 (전문가 의견)
- 한국은 수출국으로 북극항로가 열리면 실질 수혜국 전망

- 비회원국 한국, 북극해 지분이 가장 많은 러시아와 협력 필요
- 방법론 관점에서 지금까지 전략 부재
- 한국 '조선기술' 러시아 '자원개발'로 상호 결합. 협력모델 창출 필요 (LNG가스전, 목재에너지, 조선수리 등)

'장기적 관점의 사업 참여기반 확보'

4

철도



-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은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통로
-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핵심 인프라로 꼽힘 '물류비용 절감'경제적 효과

- 대·내외적 변수요인으로 매번 추진동력 상실
- 의미있는 성과 차곡차곡 쌓으며 새로운 접근법 필요
-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재개하여 일대일로(중), 신동방정책(러) 연계한 육상운송 루트개발 선행 필요
- 사업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호혜적인 남북 분위기 필수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으로 남북간 갈등국면을 완화하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필요'

V. 9-BRIDGE

구분

Bridge

주요 내용

5

항만개발



- 러 극동지역 자루비노항은 러시아가 최우선적으로 현대화를 다자협력으로 추진하는 항만개발 프로젝트임
 - 환동해권에서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핵심 통로
 - 한국의 부산,포항,속초,동해와 중국 동북3성을 잇는 가교항으로 전략적 내재가치가 높음
 - 자루비노항 내재가치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성 담보가 안돼 실제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했음
 - 양국 정부차원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프로젝트 참여 검토 필요

‘물동량 등 러측에 사업성을 기대하기 보다 우리 정부가 선제적 사업성 검토 필요’ ☞ 기업에 일임하면 절대 실현 안됨

6

조선



- 러시아정부 차원에서 주력하는 극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 한국 조선기술이 결합돼 러시아 쇄빙선을 건조하면 훨씬 가치있는 사업모델을 창출 할 수 있음
 - ☞ 조선수리,조선기자재 등 장기적안정적 공급체인망 구축
 - 또한 조선업 협력을 발판으로 북극항로에서 한러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음

‘북극해에 매장된 자원개발 참여기반을 구축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북방에너지 개발의 교두보를 만들 필요가 있음’

7.8

농 · 수산업



- 러시아 정부는 수산자원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이에 수산가공 분야의 투자가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러시아 수산자원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
- 러시아 극동지역은 풍부한 수산자원이 있는 반면, 자체 가공 기술은 부족한 실정
- 영농(식량)사업을 극동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며 최근 러 정부차원에서 갖가지 지원책을 시행하며 독려하는 사업
 - 중국,일본,한국 등 주변국과 협력(농업창설기금)으로 개발 가속화 정부지원금 확대로 사업 독려
 - 최근 축산물(양돈,낙농)사업등 연관사업으로 확대 중
 - 향후 한국의 가공기술,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 자원이 결합한 모범적인 합작 사업모델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

한러 협력방향을 종자개발, 재배기술 협력보다는
당면한 현안인 진출기업의 판로개발 지원에 정책적 지원 필요
수산물클러스터 정부가 부지매입, 우리 기업에 재임대 방식 검토

‘연해주에 기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펼치는 농수산 사업지원’
‘새로운 기업진출로 개체수를 늘리기 보다 사업 안정화 지원’



- 자루비노항과 동북3성 중간인 하산지역에 한국 전용산업공단 조성
 - ☞ 사업모델(예시): 도계장, 통조림공장, 생활소비재
 - 중국 동북3성, 러 내수, 향후 북한과도 교역도 고려할 수 있는 3박자 모두를 맞출 수 있는 사업모델
 - 나진·하산 접경지역은 한국의 환동해권 강원도, 경북, 부산 등이 자루비노항 경유, 동북3성까지 新물류루트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꾸준히 공을 들여온 지역임
 - 하산지역에 공단을 건설하면 일자리창출은 물론 한국의 환동해권 지역의 복합 물류네트워크 건설도 동시에 구축 가능
 -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바, 다자간 경험으로 북한의 경제개발 및 대외개방 유도, 동북아 경제권국가들간 국제경제특구 창설 추진
- ‘일자리 업그레이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 있음’**
- ☞ 사업모델(예시) : 건설 중장비학원, 동물사료공장 등

V. 9-BRIDGE 추진전략

- 일본이 러시아와 8가지 협력분야를 정하고 정부차원에서 세밀하게 관리해가는 차나에, 나진하산 사업 좌초 이후 특별한 방향타 없이 배회중인 한러 경험분야에서 새로운 중심축을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KEY FACTOR FOR SUCCESS(KFS)

전략방향

최적의 실행전략 수립

- 우선순위 선정/ 선택과 집중/성공사례 만들 것

- 전략도 중요하지만, 분야별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 사업화 성공까지 응집력을 갖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시너지 극대화를 고려한 사업구도 결정

- 단기 · 중장기
- 한러 양자 · 다자간 협력사업으로 분야별 전략적 사업구도 선택

NO. 7,8

농 · 수산업

- 제일 먼저 현지에 기진출한 우리 영농기업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집중 지원 필요

- 기진출한 기업들의 판로를 더욱 확대해 주고, 물류인프라의 획기적 개선 보다는 경쟁력 있는 사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 지원 검토

- 수산업은 양식업과 가공사업을 동시다발적 대형화 추진보다, 시범사업으로 성공화 필요

- 결국 유통전략이 사업성공화의 관건 동시에 러시아 내수와 한국시장 판로 또한 유통화 이원화 전략으로 정부정책 필요

NO. 1,2.4

철도,가스,전력

- 위 3가지 분야는 남북러 3각협력 또는 다자간 협력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분리 추진
 - 무엇보다 북한 도발이 국제사회의 최대 갈등요인으로 꼽히는 요즘에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 함
 - 이는 중장기 사업으로 설정하되, 러시아가 주도권을 갖고 보다 면밀히 실행계획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NO. 5,9

항만, 일자리

● 항만개발과 일자리는 하나로 묶어 추진해야 시너지가 최대화 가능

- 무엇보다 항만과 공단을 동시에 건설한다면 그동안 물동량 리스크 이슈로 자루비노 항만개발에 망설이던 우리 기업들이 사업의 재검토 여지를 부여할 수 있음

NO. 3,6

조선, 북극항로

● 한국 조선기술이 러시아 북극 프로젝트와 결합 양국간 모범적 협력사업으로 실현

- 러시아 쇄빙선 건조에 한국 조선기술 부여
- 이를 통해 러 북극사업에 한국의 참여기반 모색
예) 북극해 가스전, 러시아와 가스전 참여 액화천연가스(LNG)플랜트공장을 공동건설 지분만큼 생산가스 Offtake 물량 확보.

VI. CONCLUSION

- 사업의 이니셔티브도 중요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지원 역량이 더할나위 없이 중요함
- 이를 위해 향후 한러 관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북방경제협력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한러 관계발전**이 진척될 수 있음
- 문재인 정부, 북방경제외교 전담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설이 갖는 의미는,
 - 앞으로 러시아와 전담 외교채널 별도 구축
 - 한러 수교역사 27년만에 처음으로 북방외교를 그만큼 비중있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됨
- 러시아 잠재력과 동북아에서 우리 외교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 신북방정책을 내실있게 펼쳐가며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골조공사 부터 튼튼히 건설해** 나가는데 집중해야 함
- 또한 여지껏 남북관계의 어려움으로 진척시키지 못했던 사업들을 포함, **러시아와 양자협력을 강화**해 한국미래의 명운이 담겨있는 북방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함.

감사합니다.